"53일간 순례마무리"

오체투지 순례단, 계룡산 신원사서 1차 회향

시대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지리산 노고단을 출발한 오체투지 순례단이 53일만에 공주 신원사에 도착해 1차 순례를 회향했다. 순례단이 53일 동안 순례한 거리는 180여km다. 하루 3~4km씩 3m에 한번 오체투지를 했으니 6만여 차례 땅에 엎드려 절한 셈이다.

불교환경연대 수경 스님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문규현 · 전종훈 신부 등 오체투지 순례단은 10월 26일 공주 신원사(주지 지성)에서 오체투지 순례 1차년도 회향 행사를 개최했다.

순례단의 회향 소식에 달려온 불교 · 천주교 신도 및 일반인 등 700여 명도 신원사 전방 2.8km 지점에서 오체투지를 시작해 신원사 중악단에 도착하는 오체투지에 동참해 장관을 이뤘다.

행사는 도착을 하늘에 알리는 천고제를 시작으로 헌다, 지리산 및 계룡산 합수 · 합토 행사, 천고문 낭독, 시낭송, 순례단 경과보고, 마무리 명상 등으로 진행됐다.

지관 스님은 순례단 대표 인사에서 "53일 동안 자갈길, 흙길, 시멘길 등 180여km 구간을 순례한 것은 여러분들의 뜨거운 격려와 기도 덕분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스님은 "1차년도 순례는 오늘 마치지만 내년 2차년도 순례에는 북한 묘향산까지 갈 것"이라며, "종교인과 지식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랑으로 평화와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월 26일 공주 신원사 중악단에 오르기 위해 오체투지 순례단과 대중 700여명이 오체투지를 하고있다.

'기도-사람의 길, 생명의 길, 평화의 길을 찾아가는 오체투지 순례단'의 2차년도 순례는 2009년 3월부터 공주 계룡산 신원사 중악단에서 시작한다. 순례는 임진각을 거쳐 북한 묘향산에 이를 예정이다.

혜철 충청지사장

"배우고 싶습니다. 학교 문을 열어 주십시오"

서불대생 오체투지 후 지욱 스님 찾아

"우리는 제적생이 아니라 학생입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학교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학내 분규로 제적당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사장 지욱, 이하 서불대) 학생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오체투지와 관계기관 진정서 접수, 지욱 스님 면담 등 제적 구제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불대 제적생 10여 명은 10월 2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가 있는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학원정상화를 위한 퍼포먼스(만다라 테라피)를 펼쳤다. 만다라 테라피를 공연한 송연옥(연극치료 전문가) · 문영애(탱고테라피 전문가)씨는 자아초월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나 이번 학내 분규로 제적됐다.

퍼포먼스 후 학생들은 정부종합청사에서 조계사까지 오체투지를 했다. 조계사에 도착한 학생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불자들에게 서불대 사태의 관심을 호소했다. 이어 학생들은 29일 광주 극락사를 찾아 이사장 지욱 스님과 대화를 시도했으나, 초하루 법회가 열리는 법당에서 법문만을 들었을 뿐 개별적인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욱 스님은 법문에서 "역행보살들이 많지만 살신성인하는 입장에서 감내하고 있다"며, "부처님이 그랬듯 참회만 한다면 모두 다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참회가 학내 상황에 침묵하겠다는 조건부각서를 작성하는 것이냐"며, "도대체 무엇을 참회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한탄했다.

계속된 서불대 사태에 학생 측 진정서를 받은 기관들의 움직임도 시작됐다. 조계종 호법부(부장 정만)는 성의 없이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도 "교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적절한 소명절차 없이 총장대행이 일방적으로 제적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요청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불대 김우열 관리과장은 "학생 제적과 관련한 교과부의 소명요청 공문을 접수해 답변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임됐던 황윤식 총장이 11월 중순경 판결을 앞두고 학교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황 총장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교무회의를 주관하며 "서불대에 제적생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 김영란 총장대행 측과 마찰을 빚었다. 황윤식 총장은 "총장 직위에 따른 학사행정이 가능하다는 변호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행정 정상화를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학생들은 19월 2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제적의 부당성을 토로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불상에 절했던 이찬수 교수 복직하나?

대법원, 10월 23일 강남대 주장 '기각' 판결

사찰에서 불상에 절했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됐던 이찬수 교수가 대법원에서도 '복직'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특별 3부(재판장 이홍훈)은 10월 23일 "상고인(강남대)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이로써 이 교수는 강남대가 재임용을 거부하며 교육과학기술부,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벌였던 4차례의 법적 다툼에서 모두 '재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찬수 교수는 2003년 EBS 교양프로그램 '톨레랑스'에서 종교간 조화와 관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당에서 절한 것이 문제가 돼 2006년 교수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같은 해 교과부 소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강남대의 이 교수 재임용 거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강남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대법원까지 이르렀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등 '강남대 이찬수 교수 부당해직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판결 직후 '대법원 판결을 즉각 이행하라'는 성명을 냈다.

대책위는 "강남대는 이번 대법원 결정을 겸허히 수용해 하루 속히 이찬수 교수를 복직시키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동섭 기자

대구경북불교대회 전국 동참

전국 사찰 일제히 범종 33타

11월 1일 열리는 대구경북 범불교도결의대회에서는 전국 3000여 사찰에서 일제히 범종을 33번 울리고 각 본사에서 성지순례 형식으로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10월 27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5차 교구본사 주지회의를 열고 이번 불교도대회에 3만 여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한편, 총무원은 이날 회의에서 2009년 예산 기조 및 예산안을 보고했다.

김성우 기자

'뜰앞에 곶감말리기' 충주 창룡사(주지 성도) 법당 처마에 매달린 곶감들이 가을 볕에 익어가고 있다.
혜철 충청지사장

"스님 해외여행 기준있어야" 교단자정센터 논평 발표

조계종 교단자정센터(대표 김희욱)는 10월 24일 논평을 통해 "해외여행 시 스님들의 행동지침을 종령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단자정센터는 "9월 29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홈페이지에 'B교구 소속 30여 명의 스님이 필리핀 카지노를 출입했다'는 제보가 게시되자 호법부가 각 교구본사에 '공무 외 해외자제'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며, "이는 위험수위에 이른 승풍 실추를 예방하기에는 미흡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엄중하고 체계적인 지침을 종령화해서 상습적으로 향락외유를 즐기는 승려에 대한 엄단의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단자정센터는 이어 종령을 통해 ▲해외여행 시 목적을 총무원이나 교구본사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순수한 친교 목적 해외 골프의 기준 제시 등을 제시했다.

김진성 기자

촛불 농성자들 조계사 떠나

10월 29일 종적 묘연

경찰의 총무원장 지관 스님 검문검색 강행을 촉발시킨 조계사 촛불 농성자들이 10월 29일 1시 30분 경 일제히 조계사를 떠났다.

이날 조계사를 떠나 잠적한 수배자는 박원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한용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권혜진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백성균 미친소닷컴 대표, 김동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등 6명이다.

경찰은 조계사 외곽에 형사 50여 명을 배치하고, 수시로 조계사 경내에서도 감시하는 등 수배자 도주에 대비했지만 이날 잠적한 6명을 비롯해 앞선 수배자 잠적을 제때 알지 못했다.

광우병대책회의는 오후 4시 수배자들이 떠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배자들이 오늘 조계사를 떠나 '잠행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고, 경찰도 수배자 잠적을 시인하고, "완전히 빠져나갔는지를 위해 소재파악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계사 농성단은 그동안 경찰의 감시 강화와 조계사의 입장, 대외적인 여론악화 등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성단은 '안티이명박카페' 백은종 부대표가 10월 18일 오후 '민생 ·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조계사를 나섰다가 경찰에 검거되고, 10월 24일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김광일 행진팀장이 잠적하자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수배자들은 대책회의에 "그간 장기간 농성을 도와주신 조계종 총무원장과 불자 등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메시지를 남겼다.

조계종 총무원 관계자는 "불교는 오고 감에 자유자재하고, 조계사에는 울타리가 없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왔다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며 "광우병 등 사회적 갈등이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원만하게 해결돼 다시는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기를 기원한다"고 사태의 원만 수습을 바랐다.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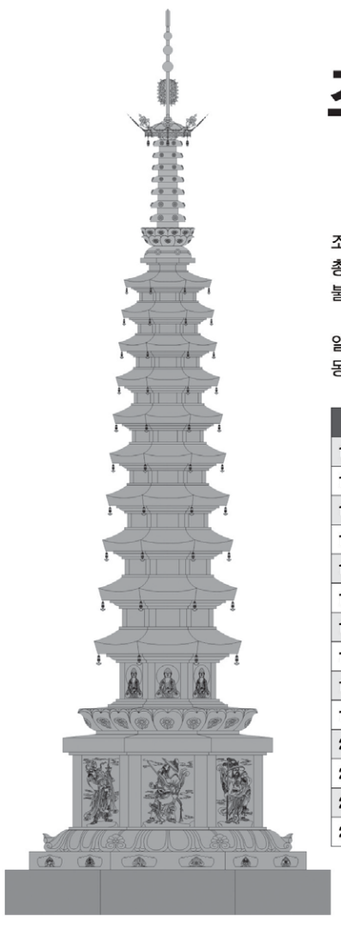
구독신청 · 기사제보 02-2004-8200

스님과 함께하는
조계사 시민선원 동안거 결제 회원모집

도심 속 열린 도량 조계사에서 시민선원 개원을 맞아 불기 2552년 동안거 기간 동안 〈스님과 함께하는 시민선원 동안거 결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용맹정진 프로그램을 통해 스님과 재가자들이 직접 안거를 하며 수행 정진하고자 합니다. 발심 동참하시어 참 나를 찾는 소중한 깨달음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대상 : 조계사 신도 / 일반 직장인
장소 : 조계사 시민선원 3층 선방
기간 : 불기 2552(2008)년 동안거 기간 (11.12 ~ 2009.2.9)
모집인원 : 주간반 (오전 10시 ~ 오후 5시) 40명
저녁반 (저녁 7시 ~ 밤 10시) 40명
면접 : 11월 7일(금), 시간 개별 통보

입방비 : 주간반 250,000원 / 저녁반 200,000원 (3개월)
문의 : 조계사 포교국 (02-732-2183)



8각10층 부처님사리탑건립불사 원만성취를 위한
조계사 28고승초청 법화산림법회 및
343일 조상천도법회 봉행

조계사에서는 법륜상전과 국태민안 및 남북통일, 세계평화를 발원하며 8각10층 사리탑건립불사 원만성취를 위해 총무원장큰스님을 비롯한 28분의 원로대덕큰스님들을 모시고 법화산림법회 및 343일 조상천도법회를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라옵니다.

일 시 | 2008년 11월 28일(음 11.1) ~ 2009년 6월 5일(음 5.13) 매주 금요일 10시
동참비 | 20만원 (343일 조상천도법회 동참자는 무료)

법회일시	법문내용	법사스님	법회일시	법문내용	법사스님
11월 28일 (음 11.1)	1. 서품	총무원장큰스님	3월 6일 (음 2.10)	15. 종지용출품	월파큰스님
12월 5일 (음 11.8)	2. 방편품	무진장큰스님	3월 13일 (음 2.17)	16. 여래수량품	도영큰스님
12월 12일 (음 11.15)	3. 비유품	월운큰스님	3월 20일 (음 2.24)	17. 분별공덕품	해인큰스님
12월 19일 (음 11.22)	4. 신해품	정무큰스님	3월 27일 (음 3.1)	18. 수희공덕품	총무원장큰스님
12월 26일 (음 11.29)	5. 약초유품	무비큰스님	4월 3일 (음 3.8)	19. 법사공덕품	성우큰스님
1월 2일 (음 12.7)	6. 수기품	법산큰스님	4월 10일 (음 3.15)	20. 상불경보살품	근일큰스님
1월 9일 (음 12.14)	7. 화성유품	해남큰스님	4월 17일 (음 3.22)	21. 여래신력품	밀운큰스님
1월 16일 (음 12.21)	8. 오백제자수기품	원학큰스님	4월 24일 (음 3.29)	22. 촉루품	혜총큰스님
1월 23일 (음 12.28)	9. 수학무학인기품	무관큰스님	5월 1일 (음 4.7)	23. 약왕보살본사품	현해큰스님
1월 30일 (음 1.5)	10. 법사품	흥교큰스님	5월 8일 (음 4.14)	24. 묘음보살품	청화큰스님
2월 6일 (음 1.12)	11. 견보탑품	도문큰스님	5월 15일 (음 4.21)	25. 관세음보살보문품	세민큰스님
2월 13일 (음 1.19)	12. 제바달다품	인환큰스님	5월 22일 (음 4.28)	26. 다라니품	옹산큰스님
2월 20일 (음 1.26)	13. 권지품	지하큰스님	5월 29일 (음 5.6)	27. 묘장엄왕본사품	혜총큰스님
2월 27일 (음 2.3)	14. 안락행품	종진큰스님	6월 5일 (음 5.13)	28. 보현보살권발품	총무원장큰스님

동참문의 : 조계사 접수처 732-2115 / 신도회 사무처 732-2187 / 화주단